

나주향교, 경력단절 여성 '인성·예절 강사 1급 자격증' 과정 운영



굽은 소나무 학교 '전통문화 이음이 교실' 운영

4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총 6회차 교육

나주시는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에서 경력단절 여성 20명이 참여한 '전통문화 이음이 교실'이 개강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주향교 굽은소나무학교는 문화재청, 전라남도, 나주시가 주최하는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올해로 10년차를 맞았다.

지난해까지 동신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나주향교콘텐츠사업단'으로 새 운영진을 꾸렸다.

지난 21일 개강한 전통문화 이음이 교실은 '인성·예절강사 1급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오는 4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된다.

경력단절 여성 교육생들을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혀 계승하는 '이음'으로 육성하고 수료 후 전통문화 강사 활동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은 총 6회차로 30시간 이수와 필기,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오인선 나주향교 전교는 개강식 환영사를 통해 "이음이 교실 수강생 모집이 조기 마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전통문화 이음으로서 삶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향교콘텐츠사업단 관계자는 "교육생 모두가 좋은 전통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이음으로 육성돼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전통을 알리는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통문화 이음이 교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향교 굽은소나무 학교 공식 블로그(네이버)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군 "옥수수 파종·정식작업 서두르지 마세요"

생육초기 이상저온·늦서리 피해 우려 남부평야지 적정 파종시기 4월 상·중순

화순군은 옥수수 생육 초기 이상저온 및 늦서리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적기에 파종·정식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옥수수 파종·정식 시기가 빨라지고 있으나, 이후 갑작스러운 이상저온 및 늦서리에 의한 농가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옥수수는 서리에 약하여 한랭지나 고랭지에서 일찍 심었을 때 늦서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기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생육이 위축되고 영하로 떨어지면 고사할 위험이 있다.

옥수수는 보통 두둑 멀칭재배로 노지에 직파하거나 20일 내외로 육묘하여 본엽이 2~3매 전개되었을 때를 적기로 정식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는 출하 시기를 앞당겨 수익성을 높이고자 터널재배 및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다.

옥수수 발아 최적온도는 30~32℃(최저 10~12℃, 최고 40℃ 내외)이고, 출아일수는 토양온도 13℃에서는 18~20일, 15~18℃에서는 8~10일, 20℃ 이상에서는 5~6일 정도가 소요된다.

옥수수는 어린묘 5엽기 경 생장점이 땅위로 올라오게 된다. 즉 2~3엽기에 서리 피해를 받았을 경우 생장점이 땅속에 있어 식물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새로운 잎이 돌아나 다시 자라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생장점이 살아 있어도 새잎이 나오는데 짧게는 3~4일 정도가 소요되고, 생장점이 서리 피해를 받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엔 길게는 2주 정도가 늦어지게 된다.

이에, 옥수수는 그 지역의 늦서리가 내리는 날로부터 10~15일 전 발에 심는 것이 안전하며, 남부 평야지의 적정 파종 시기는 4월 상·중순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상저온 및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한 옥수수 적기 파종·정식을 강조하고, 이와 함께 물 부족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생육 초기 가뭄 대비 적정 토양수분 관리에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 마산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직무·안전교육

구례군 마산면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96명을 대상으로 마산면민회관(청마관)에서 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일자리 이해'와 '안전 예방 기본교육'이라는 주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방수경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참여자 활동 방

법,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활기찬 진행으로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춘영 마산면장은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안전사고 없이 건강하고 즐겁게 일하시길 바란다."며 "현장 위험 요소가 있으면 제거하여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건강증진센터, 개소식...본격 운영 돌입

곡성군이 23일 '곡성군 건강증진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곡성군 건강증진센터는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지역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에 따라 건강 증진 기능에 특화된 다양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는 기존의 농업인재활센터 기능을 강화하며 1층은 농업인재활센터, 2층은 순환운동실, 프로그램실, 모바일 헬스케어실 등의 건강프로그램실로 조성됐다.

군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관리와 지원을 위해 보건 의료인 내원으로 등록, 상담, 교육, 맞춤형 신체활동 및 개인별 건강상담, 재활운

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주민 요구도를 반영해 건강증진센터 업무 필요도를 선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자조모임 △임산부건강교실 △성인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및 6인 1그룹 근력증진을 위한 순환운동 △노년 대상 농업인재활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또한 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 전



문가들이 상시로 배치되어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도울 방침이다. 전문가들이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건강식생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생활요가, 밸런스 워킹, 건강보험공단 연계 백세운동교실 등 군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청장년층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3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형 프로젝트 '바퀴달린 문화도시, 담양' 참여 마을 모집

담양군문화재단이 오는 3월 31일까지 담양 문화도시의 찾아가는 현장형 프로젝트 '바퀴달린 문화도시, 담양' 참여 마을을 모집한다.

'바퀴달린 문화도시, 담양'은 '너랑나랑'여어가는 연관문화도시'를 소개하고, 담양 곳곳에서 담양다운 문화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0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형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료 및 다과를 즐길 수 있

는 푸드트럭과 문화도슨트의 문화도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작가가 그려주는 초상화, 주민 아카이브를 위한 포토 촬영 등 문화 체험을 현장에서 즐길 수 있다.

'바퀴달린 문화도시, 담양' 참여 마을은 4월 12일부터 5월 12일 중 희망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30개 마을을 선착순 모집한다.

담양=박종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